

계열화의 기능과 장점

이 주 양
(주)미원 사료사업본부
사료영업과



해방후 우리나라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우선 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룩, 한국축산업은 농가부업적·자급자족적 경영형태에서 상업농 형태로 변천, 이윤과 자본을 추구하는 전업·기업화가 추진되어 이미 비육우를 제외한 전축종은 상당부분 전·기업화되었고, 국민소득의 증가로 축산물은 주곡에 버금가는 필수식품이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경제발전이 따라 지속될 것이며 축산업의 발전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민의 소득증대, 농촌발전은 물론 식량안보 및 효율적 국토이용 차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축산물, 소비동향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그러나, 축산물이란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기

적인 일정사육기간이 소요되며, 부패성이 있어 저장이 한시적이고, 다수의 생산자 다수의 소비자가 공존하는 완전경쟁시장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축산업은 현재 경영단계별로 저부가가치의 생산에 그치고 있고, 생산물의 수집·분산·판매의 다단계 유통으로 다수의 중간상인이 존재하여 소비자가격은 비싸나 농가정전가격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간 이에 대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안정장치가 산업내에 구축되지 못하여 아직도 계절적·주기적으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등락이 극심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유통단계의 중간상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수요에 따른 사육조절기능체계가 미비하여 생산자·소비자 등 축산업의 생산·소비단계는 과도

축산물 소비동향

(단위 : 천톤, kg)

구 분		70년	75년	80년	85년	86년	87년
쇠 고 기	총 량	37	70	99	120	136	152
	1인당	1.1	1.9	2.6	2.9	3.3	3.6
돼지고기	총 량	82	98	241	346	346	376
	1인당	2.6	2.8	6.3	8.4	8.3	8.8
닭 고 기	총 량	45	56	91	126.2	126.2	140
	1인당	1.4	1.6	2.4	3.1	3.0	3.3
총 육 류	총 량	165	225	443	593	608	668
	1인당	5.3	6.4	11.3	14.4	14.6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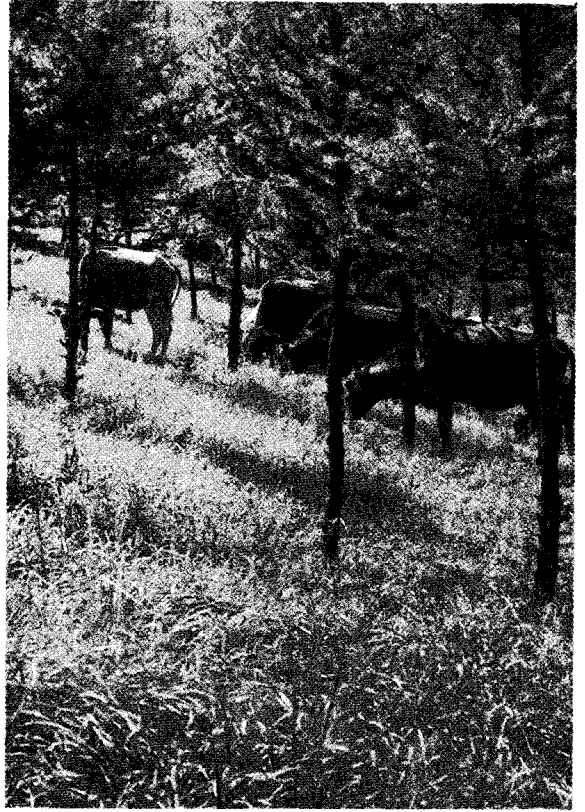
타기와 같은 쓰라린 시련을 겪고 있으며, 사료산업 등 요소산업의 취약과 축산업 제단계의 독립적 경영 및 정부의 공업우선적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따른 축산업체의 저투자로 이미 사료곡물산업은 황폐되었고 유통의 비효율화 등으로 인한 축산물의 고위의 생산비, 가공산업의 발달부진 등 산업 제단계의 부실로 인한 비교열위로 산업으로서의 존립이 구설수의 대상이 되는 등 성장위기에 처했던 일들이 지금도 축산인 모두의 뇌리에 생생하다.

더구나 미국을 위시한 선진각국의 수입개방압력과 함께 최근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사료원료가격의 앙등, 원화절상, 임금인상 등 이른바 3고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원료 및 소비시장동향에 따른 시장중심적 연계경영체제가 미비한 한국 축산업은 생산·유통·소비 기반의 취약으로 축산업 전체가 근본부터 재정립되어야 하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 축산인 스스로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축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침체된 상태로 국제화시대를 맞게 되어 축산업의 앞날은 실로 오리무중격이 되어 오히려 국민경제발전의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전국 축산업관계자가 합심하여 원가절감과 유통의 효율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공식품의 개발로 소비확대를 꾀하여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립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국축산업은 2,000년대에는 농업을 주도하는 농촌경제의 기수가 될 것이다.

이제 타의에 의하여 국제화시대를 맞게되는 한국축산업은 축산인 스스로의 공생적이고 자립적인 산업으로서의 구조적 변환기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 축산인이 자율적 수급조절 및 원가절감을 위한 과학적 생산·경영관리 의식이 높아졌고 농업관련산업(Agribusness)적인 농업과 기업의 연관성 제고, 유통단계의 단축, 기술 및 경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약생산·출하체제 구축 등 일련의 계열화 성립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더우기 생산자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발의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축산업계열화란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전후하여 생산



요소의 공급단계, 가축사육단계, 도축 및 가공단계, 유통단계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제단계중 두가지 이상의 단계가 동일한 경영관리하에서 경제적으로 통합하여 각 단계의 관련경제단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적 경제체제로 생산단계별로 발생하는 마진, 유통단계별로 발생하는 마진을 최대한 흡수하여 최종 유통단계의 마진에 통합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축산업 실정으로 보아 향후의 계열화 추진은 양계, 양돈 위주의 기업적 이윤동기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 선도하고, 산업적 안정동기에 따른 협동조합의 계열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느 경우이든 현재의 비통합체제를 부분적으로 흡수하든가 산업전체를 개편하는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계열화는 경영단계별로 동종간의 결합이나, 이종간의 결합이나 또는 동종·이종간의 연계결합이나에 따라 수평통합, 수직통합, 순환통합으로 구분되고, 통합요소가 부분이나 전체이냐에 따라 부분통합, 전체

축산업 계열화의 자생적 태동에 즈음하여

통합으로 구분되며 그 단계간 결합은 대체로 계약과 소유관계로 성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계열화로 기대되는 잇점으로는

첫째, 다단계 마진과 이윤의 상당부분이 절약되고 단일경영체제로 인한 상품 품질의 일괄적 관리로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고,

둘째,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시장점유율 증가, 가격 및 신용상의 대외협상력 증진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기할 수 있으며,

셋째, 계열주체의 중앙집중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신속성있는 대응으로 수요 및 가격변동의 완화를 기하여 각 단계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분산·제거할 수 있으며,

넷째, 계열주체의 장·단기적 사육 및 공급계획, 상품 및 가격의 차별화 유통체계의 선택 및 단축화, 자체 상품의 추진 등으로,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기술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한국축산업은 산업구조의 개편 및 수입개방압력 등 발전적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처방안으로 축산업계열화가 사양가는 물론 각 단계 종사자들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의·태동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산업적 적용여건도 성숙되고 있는 이즈음에 축산인은 더욱 공격적 시각에서 일치단결하여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립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될 것이며 정부는 축산업계열화 추진을 위한 세계 금융 등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축산업중에서 계열화 적용여건이 가장 성숙되어 있고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몇개 농장 및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고 있는 육계 계열화의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계**

〈육계 계열화 모형〉

